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이라이콤(014520)

IT부품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 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남동우 연구원
<p>■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p> <p>■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p> <p>■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이라이콤(041520)

국내 BLU 분야 전문기업,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인수로 사업 다각화

기업정보(2021/03/04 기준)

대표자	김성익
설립일자	1984년 04월 23일
상장일자	2003년 07월 04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상품 종합 중개업
주요제품	TFT-LCD BLU, 스트립 그라인더 등

시세정보(2021/03/04 기준)

현재가	10,8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316억 원
발행주식수	12,188,730주
52주 최고가	17,750원
52주 최저가	2,185원
외국인지분율	3.60%
주요주주	
김중현 외 3인	46.72%
한국증권금융	5.11%

■ BLU부터 LCD모듈까지 통합생산시스템을 구축

이라이콤(이하 동사)은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용 도광판 방식의 백라이트(Back Light Unit, 이하 BLU)를 주력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동사는 제품개발력, 품질안정화, 납기준수, 원가경쟁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BLU부터 LCD 모듈까지 통합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중국 무석 및 동관,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장 간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이하 SCM)를 수행하고 있다.

■ LCD에서 OLED로 사업 구조가 전환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

LCD, OLED, Micro LED 및 기타 디스플레이를 합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2019년에 1,08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1,39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LCD에서 OLED로 사업 구조 전환하는 추세로 OLED의 비중이 2019년 23.0%에서 2026년 34.4%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 구조 전환에 따라, 동사의 주력 제품이 포함된 LCD용 BLU 시장 역시 소폭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큰 성장세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인수로 성장 동력 마련

동사는 2020년 6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서우테크놀로지(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반도체 장비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였다. 서우테크놀로지(주)는 2013년에 스트립 그라인더(반도체 스트립의 단위 기판 상부에 형성된 몰딩층을 제거해 반도체 스트립의 전체 두께를 감소시키는 장비)의 단독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최근 새로이 양산에 적용되는 WLP(Wafer Level Package), PLP(Panel Level Package) 등 대용량 Panel Mold Grinding에 대한 장비 개발과 기술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3,440.1	12.4	-9.3	-0.3	-156.6	-4.6	-7.2	-5.2	33.5	-1,285	16,791	-	0.4
2018	3,670.7	6.7	86.1	2.3	82.3	2.2	4.0	2.8	48.9	675	17,245	8.0	0.3
2019	2,770.5	-24.5	-55.4	-2.0	-5.9	-0.2	-0.3	-0.2	15.7	-48	16,823	-	0.3



기업경쟁력

사업군 다각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파트 운영
-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기술적 권리장벽 구축
 - 등록 특허 13건, 상표권 1건 (KIPRIS, 2021.02 기준)

다양한 제품군 및 유통 채널 확보

- 중/소형(14inch 이하) BLU 제품군 생산(스마트폰, 태블릿 PC, 내비게이션용)
-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국내·외 현지 법인 설립
 - 국내 포함 7개의 계열회사 보유(홍콩, 중국, 베트남)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통합생산시스템을 보유한 EMS업체
 - 제품 설계부터 부품 조달, 생산, 물류까지 Total 생산시스템 구축
- 중국 무석 및 동관, 베트남에 법인 설립
 - 사업장 간 효과적인 공급망관리(SCM)를 통해 품질안정화, 납기준수, 원가경쟁력 유지

주요제품

동사의 BLU 제품



Strip Grinder

PLP Grinder



매출실적

■ 2020년 3분기(누적) 매출유형별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품목	매출액	비중
BLU	BLU 등	1,727.8	91.8
반도체 장비	Strip Grinder 등	153.5	8.2
총 합계		1,881.3	100.0

시장경쟁력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연도	시장규모
2019년	1,080억 달러
2026년(E)	1,390억 달러

세계 LCD용 BLU 시장규모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7년	55.1억 달러	연평균 2.2% ▲
2023년(E)	62.8억 달러	

세계 반도체 패키징 시장규모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290.0억 달러	연평균 6.6% ▲
2025년(E)	425.5억 달러	

최근 변동사항

(2020.06)서우테크놀로지(주) 인수로 성장 동력 마련

-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서우테크놀로지(주)의 지분 100%(14만 6300주)를 취득
- WLP, PLP 등 대용량 Panel Mold Grinding에 대한 장비 개발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 중

주요제품	내용
Strip Grinder	Molding된 자재(PCB)를 Grinding하여 자재 두께를 최소화하는 장비
Unit Grinder	Molding된 자재(Unit)를 Grinding하여 자재 두께를 최소화하는 장비
PLP Grinder	Molding된 자재(PLP)를 Grinding하여 자재 두께를 최소화하는 장비



I. 기업현황

BLU(Back Light Unit) 전문기업

동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형가전제품용 BLU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며, 국내를 비롯하여 홍콩, 중국, 베트남에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 회사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1984년 4월 필터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주)신평물산으로 출범하였으며, 회사 분할을 통하여 2000년 7월 (주)이라이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필터 사업을 신설 법인인 (주)신평으로 이관하였으며, 2003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1991년 1월에 자체발광형(Electro-Luminescence, EL) BLU와 냉음극 형광램프(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CCFL) BLU를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였다. 또한, 1996년 1월에는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용 도광판 방식의 백라이트를, 2001년에는 컬러 휴대폰용 소형 발광다이오드 BLU를 개발하는 등 BLU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거듭 성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인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기구, 광학 등의 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인 서우테크놀로지(주)를 인수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신성장동력도 확보하였다.

동사는 LCD용 부품,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를 위해 국내를 비롯하여 홍콩, 중국, 베트남에 총 7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센젠파이나스타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중국),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BOE테크놀로지(중국) 등 글로벌 기업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중현 회장으로 26.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김성익(9.02%) 대표이사와 이근영(8.20%), 김정선(2.87%) 등이 주요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동사의 계열회사

구분	회사명	주업종	주주명	관계	지분율(%)
국내	(주)엠앤이텍	전자부품 사출 성형	김중현	본인	26.62
	서우테크놀로지(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해외	e-Litecom(HK) Co.,LTD	지주회사	김성익	자녀	9.02
	의래특광전(무석)유한공사	LCD용 부품 제조 및 판매	이근영	배우자	8.20
	의래특광전(동관)유한공사	LCD용 부품 제조 및 판매			
	E-LITECOM VINA co.,LTD	LCD용 부품 제조 및 판매	김정선	자녀	2.87
	SUHWOO(SHANGHAI)CO.,LTD	반도체장비 설치 및 수리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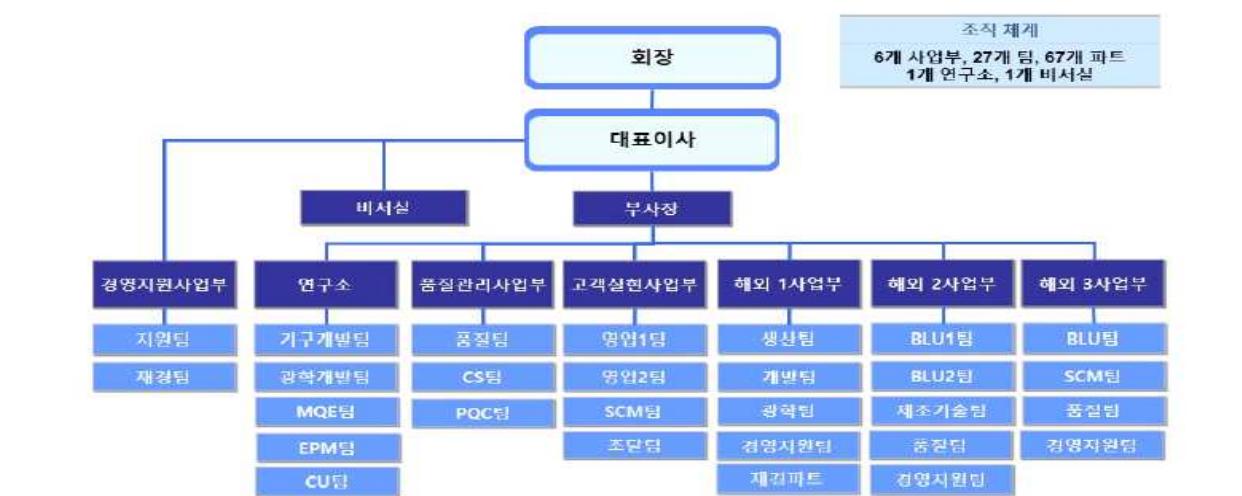


■ 조직현황 및 매출실적 현황

동사의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의 임직원은 총 124명(임원 5명, 직원 119명)이며, 6개 사업부(경영지원, 품질관리, 고객실현, 해외 1사업, 해외 2사업, 해외 3사업)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은 BLU 부문(스마트폰, 태블릿 PC, 소형가전제품용)과 반도체 장비 부문(스트립 그라인더 등 반도체 패키지 가공용)으로 나누어진다. 동사의 2019년 매출은 BLU 단일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24.5% 감소한 2,770.5억 원의 규모를 달성하였다. 또한,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은 1,88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3,440.1억 원, 2018년에는 3670.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각각 전년 대비 12.4%, 6.7%의 성장을 보인 것에 반해 2019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는 해외 매출 비중이 2018년 97.8%, 2019년 97.6%, 2020년 3분기(누적) 99.6%로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차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로 대체되어감에 따라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북미를 포함하여 유럽, 일본, 일부 아시아 국가 등 선진 시장에서는 주요 제품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교체 수요도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동사는 신사업파트를 운영하여 신규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 및 준비하고 있다.

[그림 1] 동사 조직도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2] 동사의 3개년 매출 현황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3] 동사의 3분기(누적) 매출 현황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 동향

디스플레이 시장, LCD에서 OLED로 전환에 따라 LCD 시장규모 감소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에서 OLED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LCD용 BLU 시장은 소폭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통합생산 시스템을 보유한 EMS 업체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란 200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생산방식으로 전자 분야의 신제품 개발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설계에 따라 자신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납품에 관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제조전문 서비스산업을 의미한다.

EMS 산업은 가격경쟁의 압박으로 인해 자체적인 제조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OEM 기업들의 인식 확산과 더불어 EMS 기업들의 오랜 경험에 의한 제조와 품질관리능력 향상 등으로 성장하였다. EMS 활용 시 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제조사가 생산을 EMS 기업에 아웃소싱할 경우 고정자산 확보에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 재무상태의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EMS 기업은 공장간 표준화가 철저하고 생산거점 이전에 유리한 장점을 지녀 EMS 기업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OEM, OEMS, ODM, IDH의 차이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NICE디앤비 재구성

■ LCD에서 OLED로 전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

LCD는 액정표시장치라고 하며, 수많은 액정을 규칙적으로 배열한 패널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뒤쪽에 BLU가 빛을 가하도록 하여 화면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패널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후방산업과 TV,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방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다.



[그림 5] 디스플레이의 전/후방 산업 구조



*출처: LG케피토피아, NICE디앤비 재구성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자총으로 안광면에 전자를 쏘아 충돌시켜 화면을 생성하는 방식의 음극선관(Cathode-Ray Tube, CRT) TV 보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PDP(Plasma Display Panel), LCD 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로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QLED(Quantum Dot LED), Micro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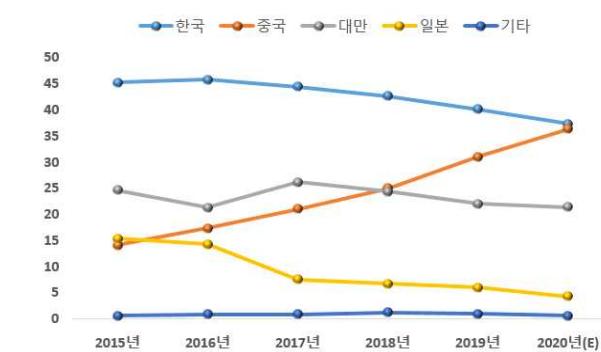
한국디스플레이협회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LCD, OLED, Micro LED 및 기타 디스플레이를 합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9년에 1,08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1,39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양산에 따른 LCD 패널 공급과잉으로 패널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LCD에서 OLED로 사업 구조 전환하는 추세여서 OLED의 비중이 2019년 23.0%에서 2026년 34.4%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4개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장 점유율의 경우 한국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LCD 시장규모의 감소에 따라, 디스플레이 시장규모의 경우 2026년까지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6]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그림 7]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단위: %)



*출처: KIDA(2019), NICE디앤비 재구성

*출처: KIDA(201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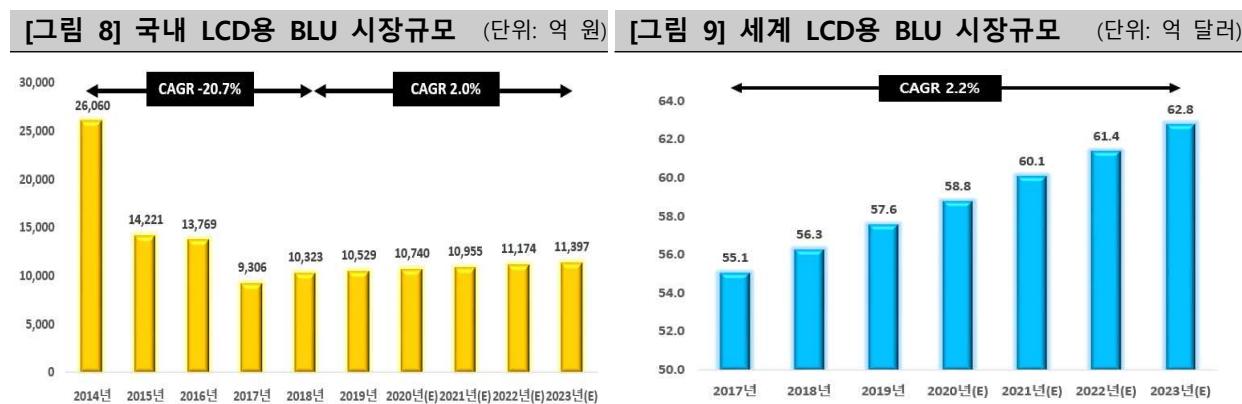


■ LCD용 BLU 시장은 소폭으로 증가 추세

LCD용 BLU는 자기 발광성이 없는 LCD 패널의 후면광원으로 사용되어 LCD 화면 전체를 균일한 밝기로 유지할 수 있는 면광원 형태의 빛을 공급하는 광학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당 시장의 절반 이상을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LCD용 BLU 기술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으나, 구성품별로 살펴보면 핵심부품들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신용정보원(TDB)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LCD용 BLU 시장규모는 2012년 2조 6,060억 원에서 2018년 1조 323억 원으로 연평균 20.7% 감소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이 2.0%로 성장하여, 2023년 1조 1,397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8)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LCD용 BLU 시장규모는 2017년 55.1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이 2.2%로 성장하여, 2023년 62.8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LCD용 BLU 생산업체는 동사를 포함하여 LG이노텍, 희성전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으나, 현재 LG이노텍의 경우 BLU 부문에서 적자폭이 증가하여 차량 조명용 LED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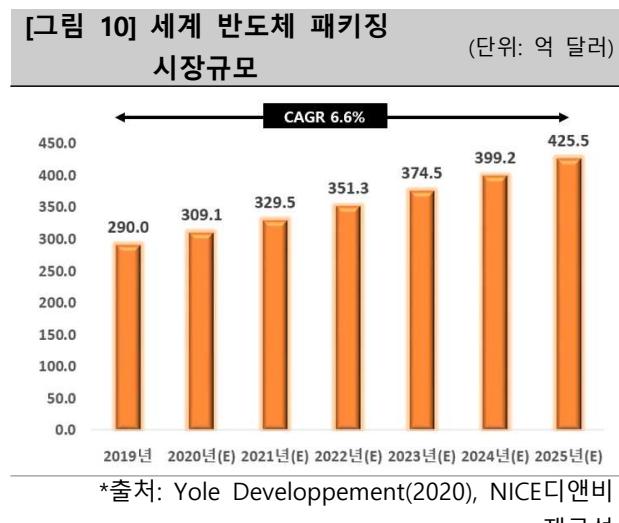
*출처: 한국신용정보원(2020), NICE디앤비 재구성

*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8), NICE디앤비 재구성

■ 모바일, 5G 등의 성장에 따라 반도체 패키징 시장 고성장세 유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동사가 집중하는 반도체 패키징 시장은 프랑스의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Yole Developpement(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90.0억 달러에서 연평균 6.6%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425.5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시장은 모바일, 5G, 인공지능(AI)의 성장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반도체 패키징 장비와 소재 시장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Yole Developpement(2020), NICE디앤비 재구성



III. 기술분석

통합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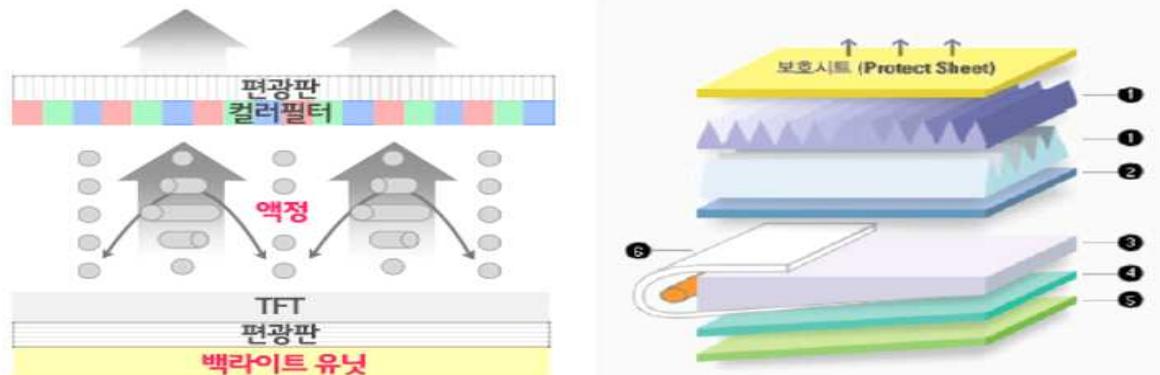
동사는 BLU부터 LCD 모듈까지 통합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무석 및 동관,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장 간의 효과적인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해 품질안정화, 납기준수, 원가경쟁력 등을 유지하고 있다.

■ BLU의 구조, 구성, 역할

BLU는 말 그대로 뒤(Back)에서 비추는 빛(Light)의 조합을 의미하며, LCD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므로 화면 구현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빛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후면에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BLU가 한다. BLU는 램프와 광학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시트는 광효율 개선을 위해 각각의 기능을 보유한 여러 종의 시트가 적층된 구조이다.

BLU용 광학시트는 프리즘시트, 확산시트, 도광판, 반사시트, 몰드프레임, 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원으로부터 선광으로 나오는 빛을 면광원화하고, 휘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11] LCD 모듈(좌) 및 BLU(우) 구조



*출처: LG디스플레이,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BLU의 구성

구분	기능
① 프리즘시트	○ 초기 광원에서 출시된 광효율을 높이고, 사방으로 퍼지는 광을 모아 휘도를 상승시킴
② 확산시트	○ 도광판에서부터 빠져 나오는 빛을 다시 산란시켜 빛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시트
③ 도광판	○ 램프의 빛을 받아 화면 크기에 맞게 전 영역에 빛을 균일하게 분포하는 판
④ 반사시트	○ 램프에서 발산되는 빛의 손실을 줄이는 시트
⑤ 몰드프레임	○ BLU의 기본 형상을 유지하게 하며, 재질은 주로 폴리카보네이트가 사용됨
⑥ 램프	○ BLU에서 실제로 빛을 발하는 광원(CCFL 또는 LED)

*출처: 동사 홈페이지, LG디스플레이, NICE디앤비 재구성



■ BLU 제조를 위한 통합생산시스템을 보유하여 원가경쟁력 확보

도광판은 LCD의 핵심부품인 BLU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광학기술(균일 및 높은 휘도), 가공기술(박형화, 열안정성, 미세 광학패턴 가공), 소재기술(성형성, 열안정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광학 요소부품이다. 도광판의 광학패턴 구조 및 소재가 최종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크릴수지(Polymethyl Methacrylate, PMMA)로 만들어져 있는 투명한 아크릴 패널을 이용하여 제조하나, 유리소재를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점차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높은 휘도, 가벼운 무게 및 얇은 두께의 요건을 갖추고, 높은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광학시트 기능의 복합화를 목표로 기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광판 표면에 광학패턴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은 V-Cut, Screen Printing, 압출성형, 레이저 가공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아크릴, 유리 등 도광판 패널 위에 부착한 형태로 제조되는 도광 필름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동사의 제품 제조 공정은 BLU 공정(프리즘시트, 확산시트, 도광판, 반사시트, 몰드프레임, 램프), FAB 공정, LCM 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소형(2.2~5.5 inch) 및 중형(4.0~12.2 inch) BLU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사의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내비게이션 등에 적용된다.

동사가 주력하는 14inch 이하의 중소형 BLU는 다양한 규격의 제품이 존재하고 있어 제품개발력, 품질안정화, 납기준수, 원가경쟁력 등이 주요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는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BLU부터 LCD 모듈까지 통합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무석 및 동관,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장 간 효과적인 공급망관리를 하고 있다.

[표 4] 도광판용 PMMA 특성

구분	일반특성	도광판용 특성
색조	투명, 반투명	투명
비중	1.19	1.19
굴절률	1.49~1.62	1.49
광학적 에너지 갭	3.8~4.4 eV	3.8
광투과율	88~93(0.1 inch, 350~850 nm)	93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2] 동사의 BLU 제품 종류



[표 5] 동사 제품의 용도

제품	크기	용도
소형	2.2" ~ 5"	피처폰
	2.2" ~ 5.5"	스마트폰
중형	7.0" ~ 12.2"	태블릿 PC
	4.0" ~ 8.7"	내비게이션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지식재산권 확보하여 기술력 보호 및 브랜드 권리 강화 도모

동사는 LCD용 기능성 필름 적층 방법, BLU 조립장치, 검사장치, 박형 도광판의 제조 방법, 인서트사출 프레임 및 성형방법 등 BLU 제품 개발 및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력 증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BLU공정 자동 검사기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적은 전기 소비량으로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지식재산권 확보로 기술력을 보호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기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IPRIS)에 등록된 BLU 관련 국내 특허권은 13건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사는 브랜드 권리 강화 도모를 위해, 자사 브랜드 관련 상표권 1건(이-라이콤 e-LITECOM)을 보유하고 있다.

■ 신규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 적용을 위한 제품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사는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조립, 포장 및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업체(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OSAT)에 장비 및 Spare Parts(Ejector Kit, Manual Tool, PP Tool, Vacuum Block 등)를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패키지의 PCB Base인 Strip 상태의 Mold Grinder 장비를 개발하여 OSAT 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있으며, 최근 새로이 양산에 적용되는 WLP, PLP 등 대용량 Panel Mold Grinding 장비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6] 동사의 사업 영역별 주요 제품과 제품별 특징

사업 영역	주요 제품명 및 특징	
Strip Grinder Series	<p>SG2000X : Molding된 자재(PCB)를 Grinding하여 자재 두께를 최소화하는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Package Strip (Max : $<W>\sim100\text{mm}$ / $<L>\sim280\text{mm}$)○ 완전 자동화 시스템(Full Auto Grinder)	
PLP Grinder Series	<p>SG3000S : Molding된 자재(PLP)를 Grinding하여 자재 두께를 최소화하는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 자동화 시스템 (On/Off, Grinding, Cleaning 등)○ 다양한 사이즈에 대응 - PLP : 320mm / WLP : 8 inch, 12inch)	
Spare Parts	<p>Ejector Kit, Manual Tool, PP Tool, Shank, Vacuum Block, Module, Heat Block & Clamp</p>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통합생산시스템을 보유한 EMS 업체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LCD에서 OLED로 시장이 전환됨에 따른 대안 필요

[그림 13] SWOT 분석





IV. 재무분석

동종업계 내 과열경쟁을 넘어 신규사업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실적 개선 필요

동사는 3개년간 중국 등 해외업체를 통한 수출로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동종업계 내 과열된 경쟁구도 형성 영향이 지속됨과 더불어 2019년의 경우 매출감소 등에 따른 비용부담 확대로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저하되었다. 2020년 기중에는 전년대비 인원이 감축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었으나, 향후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실적 개선이 요구된다.

■ 중국 등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형 BLU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체 인수를 통해 사업 다각화 기대

동사는 1984년 4월에 설립되어 휴대폰, 태블릿, 소형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중소형 BLU의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3년 7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BLU 사업부문 이외에도 스트립 그라인더 등 반도체 장비부문도 영위하고 있으나, 2019년 매출액 기준 BLU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비중이 99.6% 가량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 BLU 사업부문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등의 국내업체와 더불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테크놀로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수출비중이 97.9% 가량을 차지하는 등 높은 해외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동사는 2020년 6월 반도체 금형 및 장비 제조업체인 서우테크놀로지(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해당 인수를 통해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다각화를 진행할 계획으로 파악된다.

[표 7]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3분기	2020년 3분기
매출액	3,440.1	3,670.7	2,770.5	2,314.5	1,881.3
매출액증가율(%)	12.4	6.7	-24.5	7.5	-18.7
영업이익	-9.3	86.1	-55.4	-52.4	169.2
영업이익률(%)	-0.3	2.3	-2.0	-2.3	9.0
순이익	-156.6	82.3	-5.9	18.0	171.8
순이익률(%)	-4.6	2.2	-0.2	0.8	9.1
부채총계	685.6	1,027.8	322.2	486.5	712.9
자본총계	2,046.3	2,107.7	2,050.3	2,067.9	2,213.1
총자산	2,731.9	3,129.5	2,372.5	2,554.4	2,926.0
유동비율(%)	321.5	255.2	627.4	460.2	359.4
부채비율(%)	33.5	48.9	15.7	23.5	32.2
자기자본비율(%)	74.9	67.2	86.4	81.0	75.6
영업현금흐름	-221.7	-321.8	724.4	672.6	100.1
투자현금흐름	-13.5	-37.1	-13.4	-14.1	-330.3
재무현금흐름	-130.4	-12.4	-234.3	-225.8	-22.1
기말 현금	795.5	424.7	910.4	888.1	644.2

※ 분기: 누적 실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 2019년 디스플레이 업계 내 과열경쟁 영향으로 매출감소 및 수익성 저하

동사는 주요 고객사의 신규모델 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전년대비 12.4% 증가한 3,440.1억 원, 2018년 전년대비 6.7% 증가한 3,670.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출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9년 전년대비 24.5% 감소한 2,770.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매출하락의 주요 요인은 디스플레이 산업 부문내 중국 등 해외업체와의 과열경쟁 영향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로 파악된다.

동사는 2019년에 재료비, 노무비 등의 원가부담 확대와 더불어 매출하락 및 급여상승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이 확대되어 55.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크게 저하된 영업수익성을 기록하였다. 한편, 외환차익 등의 발생에 따른 영업외수지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5.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수익성은 적자로 저조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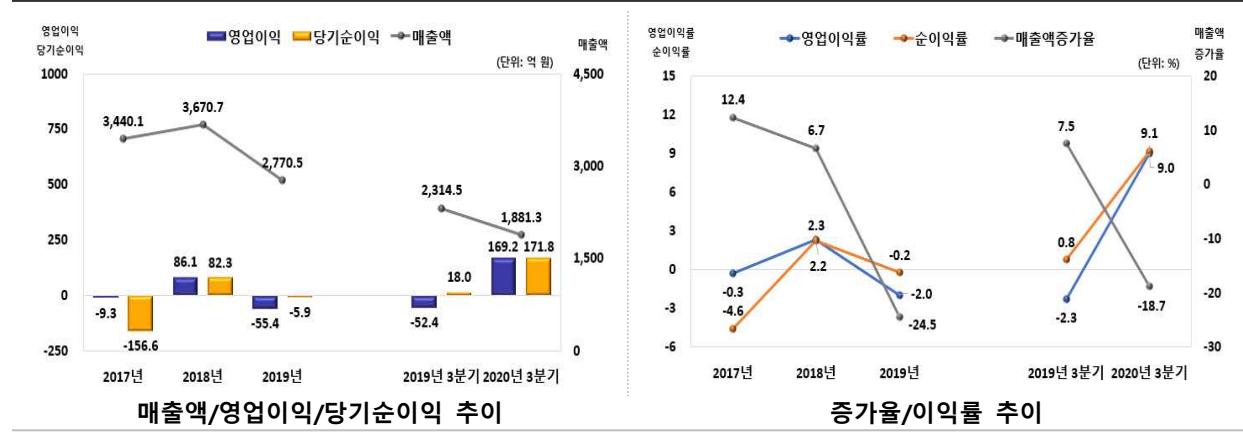
■ 2020년 3분기까지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 등 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흑자시현

2020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한 1,881.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해외업체와의 과열된 납품경쟁과 더불어 해외 매출비중이 높은 동사의 사업 특성상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매출 감소 등의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2020년 3분기까지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운반비, 경상개발비 등의 감소의 영향으로 판관비 부담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인원감축 등 노무비 부담 절감을 통해 매출원가 부담도 감소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9.0%, 매출액순이익률 9.1%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그림 14]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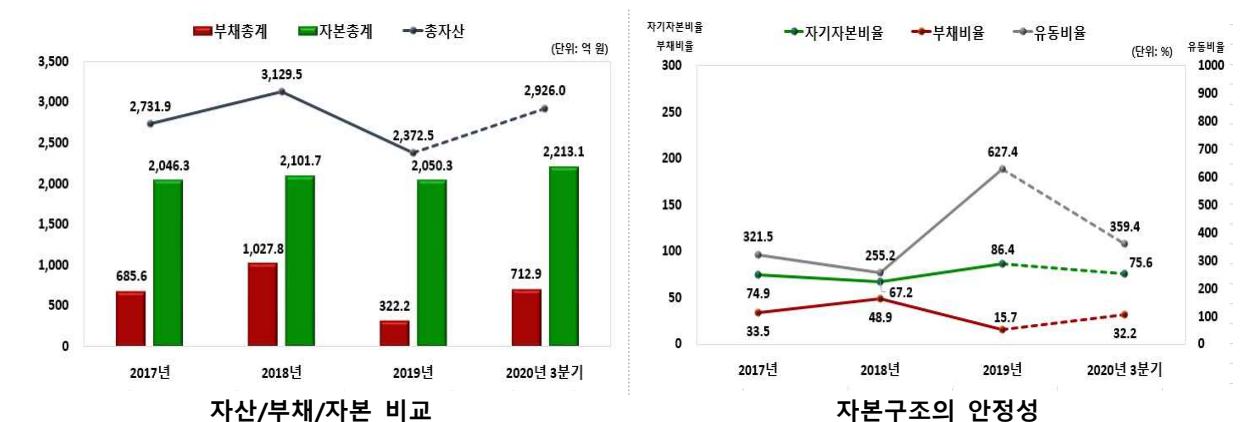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5]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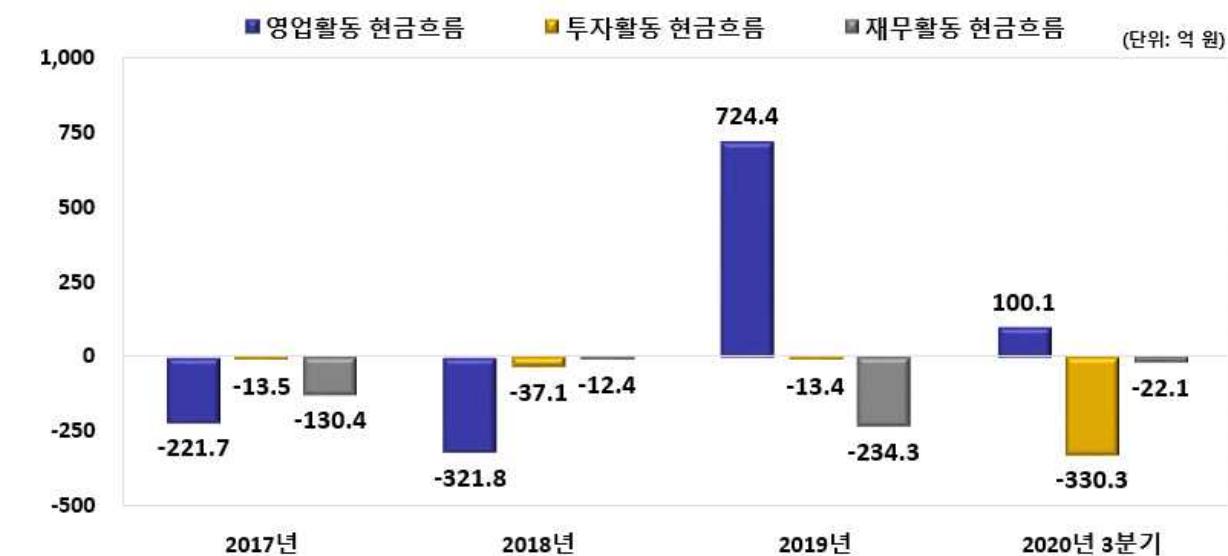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적자시현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감소 등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을 통해 현금성 자산 규모 확대

동사는 2019년 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감소, 재고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활동상 양(+)의 현금흐름을 나타냈으며, 유형자산 취득 등에 따른 투자활동 현금유출과 차입금 상환 등을 통한 재무활동 현금유출을 상기 영업활동 현금유입을 통해 충당하는 현금흐름을 보였다. 한편, 동사의 현금은 기초 424.7억 원에서 910.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6]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반도체 장비제조 업체 인수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전방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동사는 반도체 금형 및 장비제조 업체 인수를 통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서우테크놀로지(주) 인수로 성장 동력 마련

동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서우테크놀로지(주)의 지분 100%(14만 6300주)를 취득하여 반도체 장비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서우테크놀로지(주)는 2013년에 스트립 그라인더의 단독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주력사업 분야는 그 밖의 주요 제품군은 Spare parts, 인라인설립(로더류) 등이다. 1994년부터 일본과 동남아 시장 등지에 반도체 금형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1998년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시장에도 진출하여 2016년에는 오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WLP, PLP 등 대용량 Panel Mold Grinding에 대한 장비 개발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과열된 동종업계 경쟁구도 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실적 개선 필요

동사는 중국 등 해외업체와의 과열경쟁을 보이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계 내에서 최근 3개년간 매출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의 경우 매출감소와 더불어 55.4억 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시현하는 등 저조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중에는 인원감축 등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3분기까지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9.1% 대의 수익성을 시현하였으나, 동종업계 내 경쟁완화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바, 기중에 수행한 종속기업 인수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및 사업 다각화 움직임을 통한 실적개선 여부가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